

# MZ 세대의 재무지식과 재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재무관리행동 간의 영향관계 연구

김석봉<sup>1</sup>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황인섭<sup>2</sup>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왕준린<sup>3</sup>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이현상<sup>4</sup>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요약** 본 연구는 MZ세대를 대상으로 그들의 재무지식과 재무스트레스,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재무관리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며,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재무지식, 재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재무관리행동의 차이를 파악하고 나아가 이들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MZ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는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차이분석, 회귀분석을 통해 집단 간 차이, 변수 간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MZ세대 안에서도 연령대가 높을수록 재무관리행동이나 재무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오히려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MZ세대가 올바른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재무관리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20대부터 올바른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MZ세대가 이르게 재무지식을 쌓고 재무관리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재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재무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MZ세대를 대상으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사회적 현상을 반영한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MZ세대의 폭이 넓으므로 향후에는 이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주제어** MZ세대, 재무지식, 재무스트레스, 재무관리행동, 재무적 자기효능감

논문접수일 2023년 12월 18일

심사완료일 2024년 01월 19일

게재확정일 2024년 02월 29일

1. 제1저자, 6572100@naver.com

2. 공동저자, whangis@jbnu.ac.kr

3. 공동저자, wangjunlin@naver.com

4. 교신저자, lhs@jbnu.ac.kr

## 1. 서론

MZ세대(1982년~1996년)는 20대부터 40대 초반을 아우르는 집단으로, 사회·경제적으로 MZ 세대를 대표하는 연령층은 20~30대이다(이경희, 2023, p. 30). 이들은 대체로 대학생부터 사회 초년생에 해당하며,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스스로 자신의 재무자원을 활용 및 통제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본다(Perrin, A., 2015, p. 57). 특히 이 시기에 형성된 재무행동 패턴이 향후에 안정적인 경제생활 및 재정적 복지 실현의 과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재무관련 행동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과 달리 실제 MZ세대는 학자금 대출 부담, 재무자원의 부족, 취업난, 대학교육비 부담, 미래에 관한 불안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김아름·양혜경, 2016, p. 85). 더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무의사결정이나 관리행동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재무지식도 미흡한 수준으로 보고되는 실정이다. 2020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한 “2020년 금융이해력 조사”에서는 청년층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고 저축보다는 소비를 선호하는 비중이 높았다고 하였다. 더불어 이들의 80%가 OECD 금융행위 최소 목표 점수에 미달하는 결과를 보였다(한국은행·금융감독원, 2021, p. 5). 이는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 TIAA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밀레니얼 세대의 금융이해력이 성인 전체 평균에 비해 낮았고, 그중에서도 특히 18~27세 집단의 금융 이해력이 낮다고 하였다(Yakoboski, P. J. et al., 2018, p. 20).

이러한 결과를 통해 MZ세대의 재무지식이 부족하며, 향후 이들의 경제력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측해볼 수 있다. 특히 재무스트레스나 재무지식의 경우 MZ세대의 향후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재정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이루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는 시기에 자신이 이를 얼마나 잘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인식하는 수준이 긍정적 재무관리행동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실제 MZ세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재무지식이나 재무스트레스, 재무관리행동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있으나, 재무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재무적 자기효능감까지 변수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MZ세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고, 그들의 재무적 요인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Z세대를 대상으로 그들의 재무지식과 재무스트레스,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재무관리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재무지식, 재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재무관리행동의 차이를 파악하고, 나아가 이들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비중 및 역할을 차지하는 MZ세대의 재무특성 및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재무지식이나 재무관리행동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향후 이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

인 재무관리행동을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2.1. MZ세대

MZ세대라는 용어는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s)와 Z세대(Generation Z)를 포괄하는 것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대략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에 태어난 사람들을, Z세대는 대략 2000년대 초부터 2010년대 중반에 태어난 사람들을. 이들은 사회에서 정한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기준을 중시하며, 명확한 소신을 통해 그들만의 문화현상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MZ세대는 기존 세대와 상이한 가치관으로 인하여 ‘신인류’로 지칭되기도 한다(권호순, 2020, p. 15).

MZ세대의 주요 특성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박민진 등, 2021, p. 131). 첫째, MZ세대는 디지털 기술이 이미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은 시기에 성장하였기 때문에 스마트폰,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 디지털 기술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며, 이를 통한 정보 접근과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하다. 둘째, MZ세대는 다양한 문화적, 성적, 인종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며, 이들은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특징이 있다. 셋째, 이 세대는 환경 문제, 인권, 성 평등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를 통해 소비 패턴이나 생활 습관, 직업 선택 등에서도 이러한 가치를 반영하는 경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MZ세대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개인의 취향과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다만,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기술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독특한 재무 지식과 행동 양식을 가진다. 이 세대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검색과 소비가 활발하며,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보다는 핀테크 서비스에 더 익숙하다. 하지만 이런 특성은 그들이 반드시 재무에 능숙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연구와 보고서에서는 이 세대의 재무 지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장기적인 금융 계획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김지영, 2023; 변혜원·손지영, 2021; 배희재, 2023).

특히, 이 세대는 경제적 불확실성, 높은 학자금 부담, 불안정한 노동 시장과 같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Yakoboski, P. J. et al., 2018, p. 11). 따라서 기존 세대보다는 소비보다 저축을 중시하거나 투자에 신중한 경향이 있지만, 실질적인 재무 관리 능력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한편, MZ세대는 주식, 암호화폐 등 다양한 투자 수단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투자 패턴은 대체로 단기적이고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박민진 등, 2021, p. 129). 이는 부분적으로는 이들이 정보를 주로 소셜 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얻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무 지식의 부족을 보여준다. 즉, MZ세대의 재무 지식

은 이 세대의 특성과 현재까지의 사회경제적 경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고 다양한 금융 제품에 대한 접근성은 높지만, 그로 인한 정보의 과편화와 빠른 소비 문화는 체계적인 재무 지식과 계획에는 부족함을 드러낸다. 이에 따라 이 세대의 재무 교육과 지원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개발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따라 MZ세대는 스스로가 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행동하는 특징을 보이며, 디지털 기반의 재무, 금융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현재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에 집중하며 미래를 위한 금융투자에도 관심을 가진다는 특징이 나타났다(김가영, 2019, p. 222).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재무지식과 재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에 재무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2.2. 재무지식

일반적으로 재무지식은 금융감독원에서 칭하는 ‘금융이해력’을 의미한다. ‘금융이해력(Financial Quotient)’이란 지수를 나타내는 Quotient의 이해 수준으로 사용한 금융감독원의 청소년 대상의 금융이해력 측정 결과를 발표한 이후부터 정의된 개념이다(이지혜·주소현, 2013, p. 62). 이전에는 대체로 Financial literacy로 사용해 금융관련 분야 및 문제에 대한 능력이나 지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일상적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금융거래에 대한 이해 및 금융지식의 실제 활용 능력 수준을 의미한다. 이때 금융선택에 관한 결과 및 책임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언을 청할 수 있는 능력인 금융 책임성(Financial Responsibility)을 포함해 금융이해력의 3가지 세부구성 요소로 정의하기도 한다(김영균, 2011, p. 170).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재무지식’은 금융이란 특정한 분야에 관한 지식 및 이해력 수준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고, 관련 분야에서 지식 생산의 기준점을 제기하는 것으로 본다.

## 2.3. 재무스트레스

스트레스라는 용어에 경제적인 용어를 융합한 재무스트레스라는 용어에 관하여 강숙자(2012)는 경제생활의 변화로 야기된 긴장 및 고통, 위협에 관한 개인이 지각한 곤란정도 및 반응이라고 보았다(서경현·오경희, 2010, p. 640). 더불어 Voydanoff(1984)에서는 재무스트레스가 경제적 스트레스 혹은 경제적 압박감에서 발생한 긴장감 등의 의미를 내포한 용어라고 보았다(Voydanoff, P., 1984, p. 277). 재무스트레스와 함께 쓰이는 유사한 용어로 경제적 스트레스, 재정 스트레스, 소비 스트레스 경제적 위기(crisis) 등이 있다. 이는 한정된 경제적 자원을 바탕으로 자신의 욕구를 최대한으로 만족시키고자 할 때 발생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스트레스의 정의에서 경제적 자원이라는 매개체가 큰 영향 요인으로 반응하는 심리적인 동요라고

본다. 즉, 한 개인 및 가계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심리적으로 압박감이나 긴장, 불안감, 불만족스러움 등의 감정이 동요하는 일을 경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와 같은 불안감 및 불만족스러움은 경제생활 내에서 자의 및 타의에 의하여 개인 및 가계가 생각한 이상적 생활 및 현실과의 괴리감에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스트레스 상태는 상대적이면서 주관적인 것이므로 재무 스트레스 역시 실제 경제적 자원의 고갈이나 궁핍 등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음에도 스트레스 상태에 노출될 수 있다. 즉, 재무스트레스란 재무를 관리하는 주체인 ‘나’가 어떤 재무적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부정적인 심리 상태로 정의하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심리적 동요를 유발하여 행동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부적응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 2.4. 재무적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분석과 평가 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임수현·김상훈, 2018, p. 67),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개인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믿는 신념이며, 구체적인 자신감의 정도를 표현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정의한다(이영광·지은구, 2017, p. 24). 또한, 자기효능감은 행위의 결과에 관한 기대가 아니라, 스스로를 신뢰하는 수준을 나타내는 자부심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제나 동기유발의 욕구와도 차이가 있다(이필수 등, 2015, p. 119). 여기서 결과 기대감 및 효능 기대감을 구분하는 것은 어떠한 행동이 그에 따르는 결과를 수반함을 인지하더라도 그러한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의구심이 생겨 행동하지 않는 경우에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다.

자기효능감은 대체로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변수이다. 장미선·이정연(2003)은 경제 수준이 높고,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자기효능감이 높으며, 청소년은 연령이 낮을수록 자신감 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장미선·이정연, 2003, p. 440).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면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져 우울의 수준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스스로가 스트레스 상황을 잘 해결할 것이라는 신념이 강한 것이 이유일 수 있다고 본다. 만약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우, 개인은 일의 함에 있어서 깊은 몰입이 불가능할 것이다. 반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지속된 형태의 노력을 하게 된다.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우, 자신의 잘못 및 수행해야 하는 과제에 대한 어려움을 실제보다 더 크게 지각하게 되어 스트레스가 발생하며, 능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자기 조절 능력을 처한 상황에 부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Bandura, A., 1986, p. 363).

Grabowski(2006)는 재무적 자기효능감을 재무적 목표 성취를 위한 지각된 능력으로 정의했다(Grabowski, S. J., 2006, p. 92). 이와 같은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재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 자신감, 선택으로 표현한다(Weaver, T. L et al., 2009, p. 57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무적 자기효능감을 재무적 목표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자원, 선택, 자신감, 능력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신념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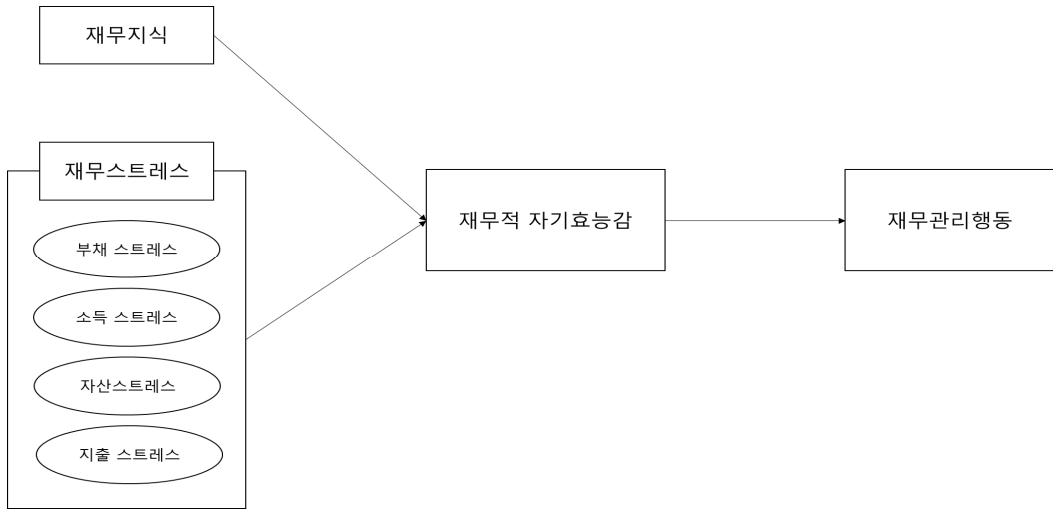
## 2.5. 재무관리행동

재무관리행동은 연구자에 따라 관점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기춘 등(2009)은 재무관리행동을 현재 혹은 미래의 소득 자산 증대 및 보전을 통해 가계가 기대한 생활양식에 부합하는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계획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한 후 평가 및 점검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행동으로 정의하였다(이기춘 등, 2009, p. 112). 정순희(2003)는 재무관리란 재무목표 달성을 넘어 궁극적으로 재정적 복지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재무목표 및 행동계획의 설정을 통해 실행, 평가, 점검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보았다(정순희, 2003, p. 48). 이러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재무관리행동을 현대 혹은 미래의 재무자원, 소득, 자산을 보전 및 증대하기 위해 개인이나 가계가 기대한 생활양식에 부합하는 재무목표를 달성하는 전 과정에 걸친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재무관리행동을 MZ세대의 일반적인 특성 및 재무적 행동이나 상황, 금융경험과 보유경험 등을 총칭하는 의미로 정의하며, 이러한 재무행동에 관한 MZ세대들의 성실성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 III. 연구방법

###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MZ세대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대, 직업 유무, 소득, 투자 여부에 따른 재무 지식, 재무스트레스, 재무적 자기효능감, 재무관리행동을 비교하고, 이들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그림 1> 연구모형

먼저 MZ세대는 개인별 특성 및 성향의 차이가 크다. 장수민·반영환(2022)은 MZ세대의 성별, 연령, 소득에 따라 금융 라이프스타일에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김진유 등(2022)은 금융서비스 전환사용의도가 MZ세대의 성별, 소득, 투자경험 및 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권재홍(2023)은 MZ세대가 주택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성별, 소득, 연령, 투자경험에 따라서 결정요인과 만족도에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MZ세대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동 차이가 나타남을 유추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MZ 세대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직업, 소득, 투자 경험)에 따른 재무지식, 재무스트레스, 재무적 자아효능감, 재무관리행동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다음으로, MZ세대의 재무지식, 재무스트레스, 재무적 자아효능감과 재무관리행동 간의 영향관계에 관하여 손지연·박주영(2018)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재무지식과 재무관리행동이 정(+)의 영향관계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이지혜·주소현(2013)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재무스트레스와 재무지식이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권세훈·반주일(2021)은 금융지식이 결국 금융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김아름·양혜경(2016)은 사회초년생으로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재무스트레스가 재무관리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재무적 자아효능감의 경우,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없었으나, 자아효능감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수미(2008), 김경렬 등(2012)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MZ세대의 재무지식과 재무스트레스, 재무적 자

자아효능감과 재무관리행동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2. MZ세대의 재무지식, 재무스트레스, 재무적 자아효능감은 재무관리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MZ세대의 재무적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와 관련한 연구가 많지 않았으며,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로 범위를 확대하여 살펴보았다. 박혜영(2020)은 자아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와 행동의도 간에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이경아·이경렬(2015)은 수용자의 개념과 태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박수경(2023)은 혁신행동과 행동의도 간에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를 통해 자아효능감이 행동의도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3. MZ세대의 재무적 자아효능감은 재무지식, 재무스트레스와 재무관리행동 간에 매개효과가 존재하는가?

## 3.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MZ세대(1982년~1996년)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기기입식 방식을 채택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눈덩이 표집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설문조사는 SNS와 메신저, E-mail 등을 활용하여 배포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데이터 크리닝 과정을 통하여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을 제외하였으며, 전체 수집 자료인 491부 중 44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4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3.3 측정도구

본 연구는 재무지식과 재무스트레스, 재무적 자기효능감, 재무관리행동을 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3.3.1. 재무지식

본 연구에서의 재무지식 수준은 조사대상자의 재무관리지식 역량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12개의 재무지식을 제시하고, O/X퀴즈 형태로 각 문항에 관하여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최종 점수를 합산해 조사대상자의 재무지식 수준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때 문항은 김정현·최현자(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재무관리역향 척도 중 재무지식 역량 척도인 4번~15번까지의 1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 3.3.2. 재무스트레스

재무스트레스는 가계의 주요 재무 관리자가 부채, 자산, 지출, 소득과 관련하여 재무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경험하는 고통, 긴장감, 압박감 등에 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한다. 국내 외에서 재무스트레스를 특징한 연구는 다수 있었지만(계선자·유을용, 2002; 김성숙, 2015; 신호연·홍은실, 2013; 유을용, 2002; Prawitz, A.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재무상태와 유사하게 부채, 자산, 지출, 소득으로 하위영역을 구분한 유을용(2002)의 척도를 이용해 재무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유을용, 2002). 유을용(2002)은 가계관리자의 재정 스트레스에 연관된 직접적인 재정 문제는 대부분 고용, 물가, 부채, 지출, 소득 등의 영역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유을용 2002). 또한, 유을용(2002)과 신호연(2013)은 가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재무적 상황에 대한 가계관리자의 주관적 심리적 평가에 중점을 두기 위해 가계 외부의 경제지표인 고용이나 물가 등의 요소를 제외하고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을용(2002)의 부채 스트레스 4문항, 소득 스트레스 5문항, 자산 스트레스 5문항, 지출 스트레스 7문항 등 총 21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대상인 MZ세대 부합하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 3.3.3. 재무적 자기효능감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재무 맥락에서 스스로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능력 또는 재무적인 문제 상황에서 이를 해결 및 극복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신념이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재무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관련하여 이필수 등(2015)은 재무적 자기효능감을 Lown(2011)이 개발한 척도를 번안해서 사용하였다. Lown(2011)이 개발한 척도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General Self-efficacy scale)을 기반으로 재무적 상황에 적용 가능한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필수 등(2015)이 번안한 Lown(2011)의 척도를 활용하여 재무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다.

### 3.3.4. 재무관리행동

재무관리행동 수준은 조사대상자의 재무관리행동의 역량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김정현, 최현자(2011)의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총 10개의 재무관리 문항을 구성하였고, 재무관리에

관한 경험 및 지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각 문항에 관해 1-5점으로 측정된 평균값을 조사대상자의 재무관리행동 수준이라 표현하였다.

### 3.3.5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선정한 측정 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크론바흐 알파(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측정도구	문항수	신뢰도 계수
재무지식	12	.890
재무스트레스	21	.885
재무적 자기효능감	6	.900
재무관리행동	10	.856

<표 1>에 제시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모든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가 .800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3.4.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7.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응답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크론바흐 알파 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성별은 남성(48.1%)과 여성(51.9%)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연령대는 30대(48.3%)가 가장 많았다. 직업은 없음(34.0%)보다 있음(66.0%)이 더 많았으며, 소득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39.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여부는 경험 있음(57.9%)이 경험 없음(42.1%)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MZ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조사대상자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차이분석을 실시하여 특성 간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48.1
	여성	51.9
연령대	20대	37.8
	30대	48.3
	40대	13.9
직업 유무	없음(학생 포함)	34.0
	있음	66.0
소득(월 평균)	200만원 미만	23.5
	200만원-300만원	39.6
	300만원-400만원	28.2
	400만원 이상	8.7
투자 여부	경험 없음	42.1
	경험 있음	57.9

## 4.2. 조사대상자에 따른 차이분석

### 4.2.1 재무지식 차이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무지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결과 성별, 연령, 직업 유무, 소득, 투자여부 모두 재무지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은 남성보다 여성이 재무지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6.256$ ,  $p<.001$ ). 평균값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30대의 재무지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5.694$ ,  $p<.001$ ). 직업 유무는 직업이 있는 집단이 직업이 없는 집단에 비해 재무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t=5.069$ ,  $p<.001$ ), 투자여부 역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재무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3.152$ ,  $p<.05$ ). 평균값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이 많을수록 재무지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재무지식은 남성에 비해 여성, 연령은

30대, 직업이 있는 집단, 소득은 높을수록 투자 경험이 있을수록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확인하였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무지식 차이분석

독립변수		m	sd	t/F	p
성별	남성	7.56	1.56	6.256***	.000
	여성	9.15	1.09		
연령	20대	6.29	.998	5.694***	.000
	30대	10.23	1.69		
	40대	8.54	1.88		
직업 유무	없음(학생)	7.02	2.06	5.069***	.000
	있음	9.68	1.55		
소득	200만원 미만	6.59	1.01	5.611***	.000
	200만원-300만원	7.02	1.89		
	300만원-400만원	9.15	2.06		
	400만원 이상	10.63	1.25		
투자여부	경험 없음	7.99	1.00	3.152*	.041
	경험 있음	8.71	1.26		

\*\*\*p<.001, \*p<.05

#### 4.2.2. 재무스트레스 차이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무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연령, 직업 유무, 투자여부에서 재무 스트레스가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무스트레스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2.561, p<.05). 직업유무는 직업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 비해 재무스트레스가 높았고(t=3.956, p<.01), 투자여부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재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548, p<.01).

이를 통해 재무 스트레스는 성별이나 소득에 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은 높을수록 직업은 없는 경우에, 투자 경험이 있는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이점으로 투자경험이 오히려 재무스트레스를 높인다는 결과인데, 이는 투자로 인해 손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무스트레스 차이분석**

독립변수		m	sd	t/F	p
성별	남성	3.75	.859	1.056	.256
	여성	3.81	.956		
연령	20대	3.62	1.02	2.516*	.029
	30대	3.75	.885		
	40대	3.96	.945		
직업유무	없음(학생)	3.88	.809	3.956**	.004
	있음	3.68	1.15		
소득	200만원 미만	3.74	.806	1.250	.226
	200만원-300만원	3.75	.947		
	300만원-400만원	3.77	.993		
	400만원 이상	3.81	.891		
투자여부	경험 없음	3.70	1.09	3.548**	.009
	경험 있음	3.86	.893		

\*\*p&lt;.001, \*p&lt;.05

### 4.2.3. 재무적 자기효능감 차이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무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 성별, 연령, 직업 유무만 재무적 자기효능감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은 남성보다 여성의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평균값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40대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직업 유무는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이 없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재무적 자기효능감, 즉 재무적 자신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무적 자기효능감 차이분석**

독립변수		m	sd	t/F	p
성별	남성	3.89	.895	4.009***	.000
	여성	3.67	.775		
연령	20대	3.91	.988	3.890***	.000
	30대	3.70	.906		
	40대	3.69	1.022		
직업유무	없음(학생)	3.77	.845	.896	.569
	있음	3.80	.963		
소득	200만원 미만	3.73	1.05	1.001	.352
	200만원-300만원	3.76	.758		
	300만원-400만원	3.71	.994		
	400만원 이상	3.80	.849		
투자여부	경험 없음	3.75	.883	1.567	.301
	경험 있음	3.81	.945		

\*\*\*p&lt;.001, \*p&lt;.05

#### 4.2.4. 재무관리행동 차이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무관리행동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연령, 직업 유무, 소득만 재무적 자기효능감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령은 20대보다는 30대, 30대보다는 40대의 재무관리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무관리행동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업 유무는 직업이 있는 집단의 재무관리행동이 더 높았고, 소득 역시 소득이 높아질수록 재무관리 행동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표 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무관리행동 차이분석**

독립변수		m	sd	t/F	p
성별	남성	3.81	.888	.586	.394
	여성	3.85	.795		
연령	20대	3.69	.944	2.695*	.028
	30대	3.86	.905		
	40대	3.95	.875		
직업유무	없음(학생)	3.75	.779	4.558***	.000
	있음	3.83	.906		
소득	200만원 미만	3.71	1.02	3.589***	.000
	200만원-300만원	3.75	.698		
	300만원-400만원	3.87	.974		
	400만원 이상	3.97	.849		
투자여부	경험 없음	3.80	1.09	.885	.254
	경험 있음	3.86	1.25		

\*\*\*p&lt;.001, \*p&lt;.05

### 4.3. 변수 간의 영향관계

#### 4.3.1. 재무지식, 재무스트레스와 재무관리행동 간의 영향관계

재무지식과 재무스트레스가 각각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단순회귀 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먼저 재무지식이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재무지식이 재무관리행동을 50.1%( $R^2=.501$ )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Durbin Watsons는 1.950으로 2에 근접하므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본다. F값은 405.236( $p=.000$ )의 수치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회귀선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선성 통계량은 VIF 값이 10 이하로 나타났고, 공차 한계는 모두 0.1보다 크기때문에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무지식이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3.562$ ,  $p<.001$ ). 또한, 재무지식이 재무관리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재무지식이 높을수록 재무관리행동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재무스트레스가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재무스트레스가 재무관리행동을 45.5%( $R^2=.455$ )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Durbin Watsons는 1.915로 2에 근접하므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본다. F값은 325.662( $p=.000$ )의 수치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회귀선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선성 통계량은 VIF 값이 10 이하로

나타났고, 공차 한계는 모두 0.1보다 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무스트레스가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3.562, p<.001$ ). 또한, 재무지식이 재무관리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재무지식이 높을수록 재무관리행동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재무스트레스의 4개 하위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출, 자산, 부채, 소득 스트레스가 높으면 재무관리행동에 더 신경을 쓰게 되므로 재무관리행동이 높아진다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표 7> 재무지식, 스트레스가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선성 통계량	
		B	S.E.	$\beta$			공차	VIF
재무관리 행동	(상수)	.169	.009		2.557	.001		
	재무지식	.116	.157	.115	3.562***	.000	.809	1.237

$R^2=.501, \text{adj.}R^2=.496, F=405.236(p=.000), \text{Durbin Watson}=1.950$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선성 통계량	
		B	S.E.	$\beta$			공차	VIF
재무관리 행동	(상수)	2.225	.250		8.552	.000		
	지출	.526	.026	.504	6.431***	.000	.976	1.024
	자산	.066	.014	.060	4.459***	.000	.825	1.212
	소득	.337	.154	.195	3.190***	.000	.175	2.056
	부채	.295	.152	.145	2.896**	.005	.202	3.225

$R^2=.455, \text{adj.}R^2=.451, F=325.662(p=.000), \text{Durbin Watson}=1.915$

\*\*\* $p<.001, **p<.01$

앞서 살펴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MZ세대는 재무지식이 재무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Z세대가 재무지식이 높을수록 재무관리 행동이 개선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먼저, 재무지식이 높은 개인은 다양한 금융 제품과 서비스, 투자 수단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이로 인해 그들은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리고, 위험과 수익 사이에서 균형 잡힌 선택을 할 수 있다. 또한, 재무지식이 높으면 더 체계적인 재무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도 향상된다.

또한, 재무지식은 단순히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쓸 것인가와 관련된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개인의 생활 패턴, 가치관, 그리고 장래에 대한 계획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재무지식이 높은 MZ세대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릴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릴 수 있다. 이는 결국 그들의 생활 수준과 재무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해서 재무지식이 높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재무지식은 결정적인 시점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며,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선택들이 누적되어 더 나은 재무 상태를 만들어간다. 따라서, MZ세대에게 재무지식은 그들이 현재와 미래에 걸쳐 경제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준다. 이런 이유로 재무교육과 지식의 증진은 MZ세대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 4.3.2. 재무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재무지식, 재무스트레스와 재무관리행동 간에 재무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 회귀분석에서 매개효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1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2단계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마지막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표준화된 베타값이 3단계보다 2단계에서 더 크게 나타나야 한다.

먼저 재무지식과 재무관리행동 간의 관계에서 재무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먼저 재무지식과 재무관리행동 간의 재무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재무지식이 유의하였고, 2단계에서 재무지식이 재무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단계에서 재무지식과 재무적 자기효능감 모두 재무관리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단계의 표준화된 베타 값이 .254, 2단계의 표준화된 베타값이 .357로 나타나 2단계가 더 크므로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 효과를 갖는다고 본다.

먼저 재무스트레스와 재무관리행동 간의 재무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재무스트레스가 유의하였고, 2단계에서 스트레스가 재무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단계에서 스트레스와 재무적 자기효능감 모두 재무관리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단계의 표준화된 베타 값이 .289, 2단계의 표준화된 베타값이 .365로 나타나 2단계가 더 크므로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 효과를 갖는다고 본다.

〈표 8〉 재무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구분	단계	독립	종속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R <sup>2</sup>	F
				B	표준오차	$\beta$			
재무 지식	1	재무지식	재무관리행동	.116	.157	.115	3.562	.501	405.236
	2	재무지식	자기효능감	.329	.043	.357	7.616	.526	426.566
	3	재무지식 자기효능감	재무관리행동	.234 .512	.029 .023	.254 .701	7.982 22.072	.539	458.027
재무 스트 레스	1	재무스트레스	재무관리행동	.133	.061	.108	2.159	.455	325.662
	2	재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	.329	.042	.365	7.823	.496	339.458
	3	재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재무관리행동	.260 .517	.028 .022	.289 .707	9.383 22.966	.506	359.562

\*\*\*p<.001, \*p<.05

먼저 MZ세대의 경우,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재무에 대한 지식도 다양하게 쌓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단순한 정보의 누적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효능감을 통해 실질적인 행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투자에 대한 지식이 있더라도 이를 실제 투자에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이 높다면, 개인은 자신의 지식을 토대로 적절한 재무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 또한,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다.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상황을 극복한다. 이런 의미에서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재무지식과 재무관리 행동 사이의 강력한 연결고리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MZ세대가 더 나은 재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즉,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재무지식을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재무적 자기효능감의 향상은 재무 교육과 실질적인 재무 관리 능력 향상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다음으로 MZ세대의 경우, 다양한 재무적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중요하게 작용한다. 재무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는 재무관리 행동이 보수적이거나 무분별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절약이나 무리한 투자와 같은 불균형한 재무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이런 상황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 이유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이 재무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재무관리 행동을 취하기 때문이다.

MZ세대는 정보 접근성이 높고,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기 때문에 재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자기효능감에 크게 좌우된다.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재무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 냉정하게 판단하여 재무관리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이는 재무적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재무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MZ세대에게 재무 교육과 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이 더 나은 재무관리 행동을 취하고, 재무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든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경제적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 V. 결론

본 연구는 MZ세대를 대상으로 재무지식과 재무스트레스, 재무적 자기효능감, 재무관리행동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MZ세대의 재무관리행동을 위한 영향요인을 살펴볼 수 있었다. MZ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고, 사회 및 생활 방식, 문화적 요소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전 세대는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MZ세대는 소비를 우선시하는 세대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MZ세대 안에서도 연령대가 높을수록 재무관리행동이나 재무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오히려 연령이 낮을수록 높에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MZ세대가 올바른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재무관리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20대부터 올바른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MZ세대가 이르게 재무지식을 쌓고 재무관리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재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재무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MZ세대의 재무관리행동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서는 재무지식에 대한 축적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이 재무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가정, 학교, 그 외 사회적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가정 내에서 재무지식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 직장인인 경우 회사에서 재무지식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는 지자체나 정부적 차원에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MZ세대는 재무스트레스가 높으면 재무관리행동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를 통하여 MZ세대는 재무 관련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이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재무관리행동으로 옮기는 행동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MZ세대에게 재무스트레스가 재무관리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긍정적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재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정책, 관련 금융 상품 등이 출시되면 오히려 긍정적인 재무관리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재무적 자기효능감에 대해 MZ세대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MZ세대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음을 인지하는 세대이다. 이러

한 특징이 재무적 자기효능감에도 나타났으므로, 이들이 재무적 자기효능감을 더욱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나 기회(금융상품 및 정책 등)를 제공함으로써 MZ세대의 올바른 재무관리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MZ세대를 대상으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사회적 현상을 반영한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MZ세대의 폭이 넓고 M세대와 Z세대는 인식, 사고, 태도, 행동 등에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이들 간의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특히 재무와 관련해서도 M세대보다는 Z세대가 더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다는 연구결과(유승완, 2022)가 나타난만큼 향후에는 각 세대별로 집단을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재무지식이나 재무관리행동이 성별 및 직업에 의해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박주영, 유소이, 2013)에 따라 성별, 직업에 따른 영향력 차이를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지므로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재무관리행동의 경우 개인의 성격(내향적, 외향적)이 투자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재은, 김장현, 2010)를 통해 성격별 영향력 차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강숙자. (2012). 경제적 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활동 참여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 계선자, & 유을용. (2002). 도시 전업주부의 재정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가정과학의질연구*, 20(5), 13-26.
- 권호순. (2020). MZ 세대의 e-Book 이용에 관한 통합모델론적 접근. *한국출판학연구*, 46(4), 5-38.
- 김가영. (2019). ‘밀레니얼 (Millennial)’만들기와 청년성의 전유. *인문사회과학연구*, 20(1), 209-230.
- 김성숙. (2015). 재무스트레스 유발 사건이 비고령자 빈곤층의 재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금융소비자연구*, 5(2), 5-33.
- 김아름, & 양혜경. (2016). 사회초년생의 금융이해력과 재무스트레스가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Financial Planning Review*, 9(4), 79-105.
- 김영균. (2011). 조직변화에 대한 구성원의 정서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16(4), 163-174.
- 김정현, & 최현자. (2011).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 개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4(3), 1-36.
- 김지영. (2023). MZ세대의 서비스 기업 크라우드펀딩 참여가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박민진, 민보경, & 이민주. (2021). 미래세대의 행복과 영향 요인 연구: MZ 세대를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34(4), 121-147.
- 박주영, & 유소이. (2013). 성별과 위험수용성향에 따른 재무관리행동.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3(4), 430.
- 배희재. (2023). MZ세대 주식투자 요인 : 물질주의적 가치관 중심으로. *ATE*, 0(13), 183-195.
- 변혜원, & 손지영. (2021). 2020/2021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 MZ세대의 은퇴저축.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 서경현, & 오경희. (2010).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건강에 대한 삶의 기대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3), 633-648.
- 손정희, 김찬석, & 이현선. (2021). MZ 세대의 커뮤니케이션 고유 특성에 대한 각 세대별 반응 연구-MZ 세대, X 세대, 베이비붐세대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0(77), 203-216.
- 신효연. (2013). 도시가계의 재무상태, 재무의사소통 및 재무스트레스가 재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신효연, & 홍은실. (2013). 도시가계의 재무상태와 가계관리자의 재무스트레스가 경제적 대

- 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生活科學研究*, 0(23), 55-69.
- 심민지, & 태동숙. (2022). 인플루언서 특성이 MZ 세대의 소비가치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화장품미용학회지*, 12(3), 305-319.
- 유승완. (2022). 대기업 사무직 MZ세대 근로자의 이직의도와 조직공정성, 보상만족, 경력개발지원 및 직무열의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유을용. (2002). 都市主婦의 財政 스트레스, 對處行動 및 經濟福祉感 研究 : 中流層 家計를 中心으로.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이경희. (2023). MZ세대의 환경의식이 친환경 호텔상품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이기춘, 박명희, 윤정혜, 손상희, & 성영애. (2009). 소비자재무설계. 서울: 학현사.
- 이영광, & 지은구. (2017). 자기효능감척도 개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36(1), 5-31.
- 이재은, & 김장현. (2010). 주식 투자자 개인의 성격, 투자성향, 주식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주 이용정보 간의 관계. *商品學研究*, 28(3), 47-56.
- 이지혜, & 주소현. (2013). 대학생의 재무스트레스와 재무지식 및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6(4), 45-70.
- 이필수, 이용기, 유동근, & 김승섭. (2015).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돈에 대한 태도 및 연금저축 가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상품학연구*, 33(4), 113-124.
- 임수현, & 김상훈. (2018). 옴니채널 서비스의 소비자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자기효능감과 개인혁신성을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21(1), 45-73.
- 장미선, & 이정연. (2003).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관련 변인. *한국생활과학회지*, 12(4), 433-447.
- 정순희. (2003). 금융자산수준별 가계부채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7(2), 45-57.
- 최모세, & 김상진. (2020). MZ 세대의 틱톡 이용 동기가 만족도와 챌린지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KIPAD 논문집)*, 0(62), 21-30.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2021). 2020년 금융이해력 조사.
- Bandura, A. (1986). The explanatory and predictive scope of self-efficacy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3), 359-373.
- Bandura, A. (2001). Social cognitive theory: An agentic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1-26.
- Brown, G. W., & Harris, T. O. (Eds.). (1989). *Life events and illness*. New York: Guilford.
- Cannon, W. B. (1929). The sympathetic division of the autonomic system in relation to homeostasis. *Archives of Neurology & Psychiatry*, 22(2), 282-294.
- Dohrenwend, B. S., & Dohrenwend, B. P. (1974). *Stressful life events: Their nature and effects*. John Wiley & Sons.

- Grabowski, S. J. (Ed.). (2006). *Hydrogen bonding: new insights*(Vol. 3). Dordrecht: Springer.
- Holmes, P. (1979). A nonlinear oscillator with a strange attractor.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A, Mathematical and Physical Sciences*, 292(1394), 419-448.
- Lown, J. M. (201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inancial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2(2), 54.
- Maddux, C., Sprague, D., Ferdig, R., & Albion, P. (2007). Online education: Issues and research questions. *Journal of Technology and Teacher Education*, 15(2), 157-166.
- Perrin, A. (2015). Social media usage. *Pew research center*, 0(125), 52-68.
- Prawitz, A., Garman, E. T., Sorhaindo, B., O'Neill, B., Kim, J., & Drentea, P. (2006). InCharge financial distress/financial well-being scale: Development, administration, and score interpretation.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7(1), 34-50.
- Voydanoff, P. (1984). Economic distress and families: Policy issues. *Journal of Family Issues*, 5(2), 273-288.
- Weaver, T. L., Sanders, C. K., Campbell, C. L., & Schnabel, M. (2009).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domestic violence-related financial issues scale (DV-FI).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4(4), 569-585.
- Yakoboski, P. J., Lusardi, A., & Hasler, A. (2018). Millennial financial literacy and Fin-tech use: Who knows what in the digital era.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Literacy, Financial Stress, Self-efficacy, an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s of Generation MZ

Kim, Seok-Bong<sup>1</sup> Ph.D. student,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Whang, In-Seob<sup>2</sup> Profess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Wang, Jun-Lin<sup>3</sup> Ph.D. student,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Lee, Hun-Sang<sup>4</sup> Profess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how financial knowledge, financial stress, and financial self-efficacy affect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s among the MZ generation, and identifies differences in financial knowledge, financial stress, self-efficacy, an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and further identifies the influence relationships among them.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the MZ generation, and th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difference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and the influence of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within the MZ generation, the higher the age group, the higher the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and financial knowledge. On the other hand, financial self-efficacy was found to be higher at younger ag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MZs need proper education and management from their 20s, when financial self-efficacy is high, in order to accumulate economic wealth and engage in proper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s.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suggested that measures to reduce financial stress and improve financial self-efficacy are needed to help Gen MZ build financial knowledge and engage in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s at an early ag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results that reflect the current social phenomenon because it collected actual data on the MZ generation and analyzed them based on the contents. However, due to the wide range of Generation MZ, it is recommended that future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analyze them separately by generation.

**Keywords** Gen MZ, financial literacy, financial stress,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financial self-efficacy, financial self-efficacy

**Received** December 18, 2023

**Revised** January 19, 2024

**Accepted** February 29, 2024

---

1. First Author, 6572100@naver.com

2. Co-Author, whangis@jbnu.ac.kr

3. Co-Author, wangjunlin@naver.com

4. Corresponding Author, lhs@jbnu.ac.kr